

겨레의 언어 통합과 문학의 역사를 이끄는 인문주의자를 만나다

- 염무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염무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질문자 이상혁(한성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때 2019. 9. 25.(수) 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실

이상혁 염무웅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사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선생님의 근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무웅 정년 퇴임을 한지도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원래 제 계획은 잡다하게 써 온 글들을 다시 훑어보고 정리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빈 곳이 있으면 더 쓰면서 비평가로서의 생애를 정리하는 글쓰기를 하려 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자꾸 일이 생겨요. 작년에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직이 맡겨지더니 올해엔 새로 출범한 국립한국문학관관장에 임명됐어요. 공무에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책 읽는 게 잘 안 돼요.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라는

- 어떤 시인의 산문집 제목처럼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웃음)
- 이상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세요?
- 염무웅 거의 25년째 당뇨예요. 이 당뇨가 모든 병의 출발점이랍니다. 예전엔 과음도 서슴지 않았는데 건강에 위기가 와서 생활 습관을 확 바꿨죠. 당뇨 아니라도 나이가 들면 절제된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건강이 좀 나아졌어요. 아주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관리는 하는 편이죠. 무리한 일은 안 합니다. 원래 술을 굉장히 잘 먹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흥내만 조금 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 놓고 어루만지기만 하듯이 집사람 따라 대형 마트 매장에 가면 술병을 쓰다듬기만 합니다. 젊은 날에 이런 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하지요.(웃음)
- 이상혁 선생님의 고향은 강원도 속초입니다. 속초는 실향민들이 월남하여 많이 거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나요?
- 염무웅 속초가 고향이긴 하지만 8.15 직후, 그러니까 네댓 살 때 떠났기 때문에 추억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속초는 38선 이북입니다. 어려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4살쯤에 부모님을 따라 월남을 했어요. 깜깜한 밤에 속초에서 밀항선을 타고, 새벽이 밝아올 때 주문진항에 도착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미군을 봤죠. 당시에는 교통편이 열악해서 걷고 타기를 반복하다가 장성(지금의 태백시)이라는 곳에 정착했어요. 그곳에서 한 2년쯤 살다가 1948년 초에 경북 봉화군 춘양으로 넘어와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지요. 6.25 전쟁도 여기서 겪었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저는 낮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어울릴 때는 경북 안동 지역 사투리를 썼고 집에 오면 부모님과 강원도 사투리로 말하곤 했어요.

일종의 이중 언어생활을 한 셈인데, 그런 연고로 말에 민감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듬해 봄에 우리 집은 다시 충남 공주로 이사 를 했어요. 6.25 때 작은아버지가 북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피해가 생길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게다가 공주는 교육 도시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제가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하면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점점 책만 읽는 내성적인 학생으로 바뀌었죠. 사회에 진출한 뒤에는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다 보니 되도록 표준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했고요. 영남대학교에서 27년간 근무하는 동안 학생들은 제가 서울말을 쓰는 줄 알았겠지만, 제 말은 그냥 인위적으로 형성된 표준적인 언어였지 서울말은 아니었어요. 제 말에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어의 흔적이 다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이상혁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문리대에서 독문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평론 <최인훈론>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한국 문학 비평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염무웅 독문학과를 선택한 건 타협의 결과입니다.(웃음) 공주 저희 집에는 공주사범대학교 학생들이 늘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학생들의 영향을 받아 <현대문학> 같은 문학잡지도 보고 <사상계> 같은 교양지도 보았지요. 당시 제가 가장 심취해서 읽은 필자는 함석헌 선생이었어요. 1958년에 <사상계> 매호마다 선생의 글이 연재되었는데 잡지가 나올 무렵이 되면 수시로 책방 앞을 서성거

리며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함석현 선생이 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연재한 글인데 6.25 직전에 책으로 나왔어요. 1965년에는 완전히 고쳐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새로운 책을 냈지요. 전자는 ‘국한문 혼용’이고 후자는 완전히 ‘한글 전용’이에요. 기회가 되면 이 두 판본을 비교해 가면서 문체의 변화, 함석현 사상의 변화 등을 연구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다른 한편, 저는 그 무렵 손창섭, 선우휘, 오상원, 서기원 등의 전후 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열심히 읽었어요. 당시는 입시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학교 공부 이외의 문학이나 교양서적을 탐독할 수 있었습니다. 고3 때는 입시 공부를 했지만, 그전까지는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어요. 함석현 선생의 사상을 체계화하기 위해 철학과를 택할까 고민하다가 타협책으로 독문과를 선택했죠.

4.19가 나던 해 입학했는데, 동기생은 20명이었어요. 그리고 영문, 독문, 불문 각각 20명씩 60명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영문과 박태순, 불문과의 김승옥과 김현, 독문과에는 이청준, 김광규 등 후일 다 문단에서 큰 활약을 한 사람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어서 자연히 문학적 분위기가 생겨났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을 흔히 4.19 세대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4.19 세대’라고 불릴 만큼 그들 간에 공통된 지향이나 의식의 공유가 있었을까요? 경험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들은 열 살 무렵 6.25 전쟁을 목격했고 그로부터 10년 뒤 청년기에 접어들자마자 4.19 혁명을 겪었다는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건 그들의 작품이나 언행을 더 꼼꼼하게 분석해야 얻을 수 있는 결론인데,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사실은 4.19 이후 3~4년간 학교가 비교적 평온했다는

겁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 정권을 세웠지만 그들은 학원까지 손을 뻗치진 않았어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토론하고 비판적 발언하는 건 정부에서 방임했어요. 학생들의 비판 활동이 정권의 안위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어쨌든 아주 특이한 기간이에요. 물론 정치학, 사회학과와는 그 분위기가 달랐죠. 더구나 정치학과나 사회학과 학생들과 달리 우리, 외국 문학 전공자들은 서양 사조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죠. 민족의식이 있는 분들이 우리를 봤으면 ‘밸 빠진 놈들’이라고 했을지도 모르죠.(웃음) 제가 대학을 졸업한 1964년부터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은 반정부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지요. 그 후 한국 대학 상황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신춘문예로 등단하면서 신구문화사라는 출판사에 취직이 됐어요. ‘한국의 인간상’, ‘노벨문학상전집’ 등을 만드는 일에도 관여했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고 힘을 쓴었던 작업은 18권짜리 ‘현대한국문학전집’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 무렵까지의 주요한 한국 작품들을 많이 읽었어요. 말하자면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들이 해야 할 공부를 월급 받아 가며 했던 셈이죠. 대학 다니면서 물들었던 서구 문학 편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것도 내게는 망외의 소득입니다. 출판사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의 글을 원고로 보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당시의 이름난 평론가나 학자들의 원고가 기대 이하라는 점이었어요. 열 명 중에 한두 명만이 제대로 된 문장을 썼고 나머지 분들은 맞춤법 틀리는 건 기본이고 비문이 수두룩했어요. 출판사 편집부에서 그걸 다듬고 바로잡아 조판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동안에 저는 말과 글에 대한

- 의식이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확한 국어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자면 우선 자기가 쓴 글을 남의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고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수적이라 봅니다.
- 이상혁 1967년부터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에 참여하여 주간(主幹)과 발행인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혹한 시절에 계간 『창작과 비평』은 뜻깊은 잡지였습니다. 창비 시절에 대한 회고를 부탁드립니다.
- 염무웅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백낙청 선생이 1964년에 서울대학교 문리대 영문과 교수가 되고 얼마 뒤 창간한 잡지가 『창작과 비평』이에요. 1966년 초지요. 처음에는 준(準)동인지 같은 작은 잡지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사상계』가 위축되면서 그 비판적 역할의 일부를 『창작과 비평』이 계승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정권의 억압적 정체가 점점 노골화되고 1970년대 들어 유신 체제로 변하면서 『창작과 비평』은 지식인 저항 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됐어요. 군사 정권에 비판적인 문인들 운동의 가장 주요한 활동 무대로 인식되면서 『창작과 비평』은 당국의 주목 대상이 된 거예요. 특히 1974년 제가 주간일 때, 장준하 선생이 주동이 되어 유신 헌법에 대한 개헌 청원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1974년 1월에 문인 61명이 개헌 청원 지지 성명을 냈죠. 이때 저도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정보부 직원들이 문인들을 거의 미행하다시피 했어요.
- 이용악, 오장환 등 월북 문인들의 옛날 시집을 복사해서 갖고 있던 것이 정보부 끄나풀 손에 들어가는 바람에 1975년 정보부 지하실로 잡혀가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내가 정보부에 잡혀 있는 동안 요원들이 집에 와서 가택 수색을 하고 월북 작가들

책, 독일어 책 등 200여 권을 가져갔어요. 북한과는 아무 연계도 없고 동대문이나 인사동 현책방에서 구한 것인데 그 책에 대한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억울하기 짜이 없지만, 결국 쓰고 나왔죠. 6.25 이전에 출판된 이태준, 정지용, 백석 등의 책들도 있었는데 뺏긴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아까워요.

이상혁 백낙청 선생님과 함께 번역하신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저에게도 친숙한 책입니다. 당시에도 이 번역서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 걸로 기억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지요?

염무웅 나에게는 창비의 주간인 백낙청 교수의 청탁이 번역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구석기 시대의 원시 예술부터 20세기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역사를 사회사적 방법으로 서술한 야심적 저서인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영화의 시대’를 백 선생이 먼저 번역해서 창비에 실었어요. 저자인 하우저는 루카치 같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고 말하자면 수정주의자인 셈인데, 그럼에도 당시의 한국 풍토에서는 참신한 시각이 돋보였지요. 독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근현대편’ 전체를 번역하기로 하고 제게 청탁을 했죠. 제 이름은 1967년 봄에 평론가가 아닌 아르놀트 하우저의 번역자로 창비에 처음 등장했어요. 아무튼 저로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했는데 제게는 아주 공부가 많이 됐어요. 원래는 근현대편 전체를 제가 번역하기로 했는데, 힘도 들고 또 평론도 써야 하니까 백낙청 선생과 번갈아 했죠. 그렇지만 원고를 내내 바꿔 읽으며 검토했어요. 명실공히 공역이었지요.

이상혁 독일 문학을 전공하시면서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 낸 모습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독일 통일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의 모습과 대비되어 그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무웅 제가 1987년 여름에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어 독일에 갔어요. ‘연 구년’을 얻어 외국을 처음 간 것인데 뮌헨에서 지냈어요. 독문학을 전공했다고 하지만 책으로 읽은 것뿐이니까 아무래도 관념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나라의 현실을 직접 보는 것은 책으로만 볼 때와는 질감이 다르죠. 제가 가 있는 동안은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였어요. 마침 그 무렵 동독의 호네커가 서독에 있는 데 신문에 호네커를 비난하는 광고와 환영하는 광고가 다 실리더군요. 여론이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독일도 어떤 면에서 우리와 비슷하구나.’ 하고 느꼈지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은 한국에서 보고 흥분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벽이 그처럼 어이없이 붕괴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었죠. 우리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다는 걸 차츰 깨닫게 됐지요. 소련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냉전의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의 기운을 독일 정치가들이 잘 활용했고,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 정책을 후임 수상들이 일관되게 추진한 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요. 무엇보다 독일 통일에 힘이 되었던 것이 기독교 평신도 운동이었는데, 분단되어 있는 기간 내내 수십만 명이 동·서독을 오가며 함께 예배를 보고 그랬어요. 베를린이라는 곳이 동독 내부에 있었잖아요? 서베를린 방송을 동독 사람들이 듣고 볼 수가 있었어요. 서방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독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낙후된 동독에 서독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계속한 것도 동서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됐지요. 동독의 정치범들을 한 사람 석방해 주면 그에 따라 서독이 몇 만 달러씩 몰래 돈도 지원하고요. 이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이 물밑에서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향해서 갈 무렵에 일부 서독 지식인들은 성급한 통일을 반대했어요. 권터 그라스 같은 작가도 점진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때를 놓쳤다면 독일은 통일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절묘한 때였던 거죠. 우리에게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제 생각에는 남북한이 우선 통일보다는 연방제나 국가 연합과 같은 공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북은 너무 경직되어 있고 교조적이며 통제된 사회이고, 남은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너무 타락한 사회인데, 각자 자기 체제를 개선하고 개혁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혁 선생님께서는 우리 문학사에서 월북 문인들의 작품을 발굴하여 알리는 데도 큰 업적을 쌓으신 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감정의 결도 다른 분들과 많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염무웅 제가 발굴을 한 건 별로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지성사에서 1988년 해금(解禁)은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는 1970년대 들어와서 동대문이나 인사동 등에서 월북 작가들 책이나 마르크스주의 계통의 책들을 일부 구해서 읽긴 했지만, 자유롭게 읽을 수 없어서 일종의 지적인 불구 상태였어요. 그걸 벗어나는 계기가 해금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흔히 남과 북만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이제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지와 분단을 겪으며 간도, 일본,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700만 가까운 이산 인구가 있어요. 중국 연변에서는 우리말로 창작하는 문학이 있고, 러시아와 일본에서는 우리 한글로 창작하는 전통을 잃어버렸지만 현지 언어로 민족의 현실을 담아내는 작품이

있는데, 이런 문학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 문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화산도》의 김석범 선생이 대표적이죠. 그는 처음에는 우리글, 한글로 창작을 하다가 일본에서 읽는 사람도 없고 익숙한 말이 일본어이니까 결국 일본어로 10권의 대작을 쓰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말로 완역되었지요. 이분의 작품도 당연히 우리 문학이죠. 이렇게 해외 동포들이 이루어 낸 문학 작품들은 언젠가는 우리 민족 문학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 이상혁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 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과 백두산을 다녀오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직접 보신 평양, 그리고 백두산에 대한 선생님의 감회가 궁금합니다.
- 염무웅 저로서는 백두산이 세 번째입니다. 맨 처음에는 한중 수교 직후에 중국을 통해서 갔었고, 두 번째는 2005년도에 ‘남북작가대회’가 북에서 열렸어요. 그때 북쪽 작가들과 평양에서 사흘, 백두산에서 하루, 묘향산에서 하루를 함께 보내며 문학을 이야기했었죠. 그때 삼지연호텔에서 자고 새벽에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 남북 작가들이 시도 읽고 성명서도 발표했죠. 벽초 홍명희 선생의 손자인 홍석중 씨의 짧지만 감명 깊은 연설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갔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갈 때마다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것은 아주 꿈같은 장면이죠. 다만 그 꿈같은 장면이 이후에 현실 속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아서 아주 아쉬워요. 능라도 경기장에 모인 평양 시민들의 일사불란한 합성과 열기는 한편으로 감동적이었지만 다른 한편 너무 인위적이지 않은가 느껴졌어요. 자유로운 민주 시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 천 명이 거대한 운동장에 앉아서 한 사람처럼 동시에 가야금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웃음)

문재인 대통령의 짧은 연설은 평양 시민들조차 자발적 환호를 내지 를 만큼 감동이었어요. 통제된 사회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호성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어려운 용 어도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동포애를 담은 것 이었죠. 대통령은 피난민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연설 안에 피난 민의 정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이는 그런 연설은 나올 수 없어요.

이상혁 얼마 전 국립한국문학관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앞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이 대중들에게 어떠한 문학 관으로 태어날지 자못 궁금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청사진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염무웅 네, 초대 관장으로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켜 볼 때, 문학 유산의 자료들뿐만 아니라 역사 자료 전체가 체계적으로 보존되거나 연구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령 구한말에 나온 《소년》이나 《청춘》 같은 잡지들도 100년이 지나니까巴斯러져요. 저에게도 《소년》이라는 잡지가 한 권 있는데 펼칠 수가 없어요. 요즘 보존 처리 기술이 발달했으니 원본은 수장고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원본과 똑같은 복각본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면 좋겠지요. 사람들 손이 닿고 입김이 가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 유산을 수집, 정리, 연구, 보존을 잘해서 우리의 문학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국립한국문학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혁 역사의 교훈으로 남긴다는 맥락에서 반민족적 행태의 친일 작품 또한 수집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도 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염무웅 국립한국문학관은 가능한 자료를 많이 모아서 후손들에게 물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김동환 등이 말년에 훼절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또한 빼트릴 수 없는 공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빼고 우리 문학사를 쓸 수 있을까요? 이광수의 경우 친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욕만 하기에는 어려운 고뇌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김문집이라는 평론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친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제로 귀화를 했어요. 1938년에 나온 그의 『비평문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평론집이에요. 장혁주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김문집과 같은 대구 출신이죠. 장혁주도 일본으로 귀화해 버렸어요. 이인직은 어떤가요? 그도 이완용 비서를 하면서 친일 정도가 아니라 매국에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소설을 연구하면서 이인직을 뺄 수 있나요?

몇 년 전부터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의 여러 문학관들을 가봤어요. 중국 현대문학관에는 공산당 투쟁의 발걸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문인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나 하는 것이 전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국은 너무 국가주의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 반면에 일본은 작가들의 예술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고, 남북의 분단과 전쟁, 민주화 운동 등을 겪어 왔으니 문학관을 돌아보면서 국민들이 우리 근현대사를 경험했으면 해요. 정치와 사회의 변화 흐름과 문학이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3.1 운동에 참가한 후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쓴 편지, 시 〈그날이 오면〉 등의 유플 원고들을 심훈 선생 아드님이 가지고 계세요. 심훈하면 『상록수』만 떠올리는데 심훈과 박현영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두 사람은 어떤 교류가 있었어요.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이런 분들도 더 부각시켜서 문학가들이 골방에서 글만 쓰고 술 마시고 기생집만 드나든 게 아니라 민족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혁 문학관 설립 주체에 대한 의견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관 설립과 운영의 주체에 대하여 선생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염무웅 중국은 국가가 현대문학관 예산을 지원하고 중국작가협회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관장은 시안시 부시장이에요. 중국작가협회가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서 당과 거의 일체화가 되어 있으니 결국 국가가 운영하는 셈이죠. 반면에 일본 도쿄에 있는 근대문학관은 작가들의 자발적 발의에 따라 설립되었고 공익 법인 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1963년에 시작하여 1967년에 개관을 했는데, 책이나 유물들 70~80%가 기증이에요. 요코하마 문학관도 시가 운영비를 대지만 공익 법인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더군요. 운영 주체는 주로 작가협회가 맡고 있고요.

우리 형편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콘텐츠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펜클럽 등이 있으니 이런 단체들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관장 추천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일본처럼 공익 법인 모델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도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행정부가 직접 관여하니까 행정적으로 잘 처리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문학관은 문학 고유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문학 관련 인물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면 좋겠어요. 행정 업무 정도만 공무원들이 하고, 콘텐츠를 구성하는 자료 구축 사업이나 전시, 열람, 회의, 특별 전시, 상설 전시 등을 문학자들이나

- 전시 전문가들이 담당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이상혁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문학 비평을 두고 ‘사회적 공론의 기능을 잃었으며 문단에서만 돌려 읽는 내부적 문건이 됐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학 비평의 존재 의미와 문학 비평 혹은 문학 비평가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염무웅 문학 비평은 작품의 우열과 옥석을 가리고 어떤 작품이 왜 좋은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본령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파란곡절이 많은 곳에서는 문학은 불가피하게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 고통의 사회적 근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학 비평은 작품의 미학적 완성도에 관심을 가질뿐더러 작품에 다루어진 실제 현실의 모순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대에 작가와 비평가들이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본업인 문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연의 사명에 충실히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문학 평론이 정치의 짐을 좀 벗어야 한다.’ 그동안 문학 비평이 사회적 불의, 정치적 억압에 대해 비판하는 임무까지 맡았었는데 이제 그 역할은 다른 곳에 맡기고 문학 자체로 들어오자는 제안이 있었지요.
- 그런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옳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문학 비평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에나 사회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종류의 생업을 가지고 일하든 간에 인류 문명의 종말적 상황이 다가온다고 느낀다면, 특히 다음 세대를 사는 10대와 20대들을 위해 절박한 위기감이 든다면 문학이 사회와 인간에 개입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혁 선생님께서는 현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과 완성이 향후 남북 언어 통합에 어떠한 의의가 있을까요? 이사장님으로서 또는 문학가로서 선생님의 평소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염무웅 사실 저는 언어 전문가는 아닙니다. 남북 분단이 남북 간의 언어 이질화를 촉진시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도 지역마다 말이 상당히 달랐잖아요. 분단 이후에는 남북 간에 단지 말만이 아니라 말을 글로 나타내는 서기 체계, 문법 규범이 달라져 왔어요. 남한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표기법이 대체로 지속되었지만, 북한은 언제부턴가 다른 체계로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어는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언어로서 이 세 나라들이 대체로 같은 규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흔히 독문학사에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작가들도 다루거든요. 물론 독일어도 근대 민족어로서의 출발은 상당히 늦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성경 번역부터 생각하면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대 독일어의 정착 과정이 지속되어 왔어요. 특히 18세기 이후 수많은 문학가들의 활동으로 글말로서 독일어의 안정성이 확보됐어요. 따라서 동·서독 분단의 45년은 그렇게 치명적일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 한글이 발명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19세기 말에 와서야 어문 일치 문장이 시도되잖아요. 그제야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독립신문』 같은 한글 신문이 나오거든요.

이광수 같은 사람이 1916년에 『무정』을 신문에 연재한 것은 한글 문장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오히려 1920년대에 염상섭, 김동인, 현진건 이런 분들이 소설을 쓴 것은 국한문 혼용이었어요. 기타 책들도 대부분 국한문 혼용이었지요. 한글 전용이

아니라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도 한글 지향적이긴 했죠. 특히 신문 연재소설은 한글이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말이 글말로 전환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크죠. 언어생활이 한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안에서 함경도, 경상도 출신 등장인물이 모두 표준말을 쓰는 걸 문제 삼아 벽초의 «임꺽정»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기 고장 사투리를 써야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안 해요. 벽초가 표준적인 말로 창작을 한 것은 의도가 있었라고 봐요. 식민지 시대에 우리말이 아직 근대 언어로 정착도 되기 전에 일본어의 침탈을 받아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선어의 단일성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표준적인 우리말로 작품을 쓴 벽초의 의도가 저는 옳았다고 생각해요.

남북 통합의 «겨레말큰사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필요 하지만 남북 언어 통합에서 결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이라는 건 생물처럼 변해 가는데, 사전을 만들더라도 금방 새말이 생성되니까 다시 또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에서 새로 생기는 말들은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겨레말큰사전»이 완성되는 것은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매듭을 짓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은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출판사에서 있어 보니까 출판사 편집자들, 특히 교정을 보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인재들이에요. 그들은 어쩌면 최초의 서평자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텍스트를 읽고 평가하는 사람들 이거든요. 절대로 그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저자들이 출판사 직원들을 막 대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상혁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으로서 남북 언어 통합

사전 편찬 작업을 가까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사전’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갖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학가로서 선생님께서는 ‘사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하시나요?

염무웅 사전은 우리말의 보고죠. 독일에서는 ‘그림 동화’로 유명한 그림 형제가 사전 편찬을 시작했잖아요? 19세기 중반에 시작한 걸로 아는데 100년이 넘게 걸려서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완성이 됐죠. 그들은 사전만이 아니라 민요, 설화 등을 수집하는 일도 시작했어요. 낱말과 민요, 설화 이런 것이 수집되지 않으면 낱말 속에 살아 있는 삶이 흩어져 버리고 문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전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유산들이 보존되는 건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이지요. 특히 사전은 낱말 풀이만이 아니라 용례가 풍부해야 해요. 《겨레 말큰사전》에 말뭉치가 있는데 남북한 작가들의 문장을 디지털화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저작권 때문에 아직 활용은 못하고 있어요. 작가들과 타협해서 국어학자, 문학 평론가들이 남북 작가들의 텍스트 속에서 어휘 차원이 아니라 문장 차원의 맥락 속에서 우리말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이상혁 지난 몇 년간 중단되었던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재개하는데 최근에 남북 양측의 공감대가 적지 않게 형성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의 방북 이후에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에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무웅 아직 별 진전이 없습니다. 우선 남북의 편찬 작업자들이 만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베이징이나 도쿄, 서울, 평양 등 어디서든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이 체육 교류, 문화 교류로 만나다가 정치가 얼어붙으면 다른 분야도 함께 얼어붙어요. 체육, 문

- 화 교류들의 상대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참 관건인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군요. 『겨레말큰사전』 작업 중 남쪽에서 해야 할 일은 거의 다 끝났어요. 올림말(표제어), 낱말 풀이를 북쪽 것과 비교하고, 교차 검토를 해서 서로 절충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북쪽과 만나는 일이 성사되지 않으니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원래 금년 4월에 사전이 나오기로 된 사업인데 3년 연장되었어요. 제가 바란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남북이 함께하는 비정치적인 문화, 체육, 예술 사업들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정치의 영향을 덜 받고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쪽에서도 문인이건 국어학자건 실무자들은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정치예요.
- 이상혁 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의 시선에서 한국어와 한글은 어떤 존재일까요?
- 염무웅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말과 글은 우리의 목숨과 같은 거지요. 그것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죠. 특히 글 쓰는 사람으로서 말은 그냥 목숨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죠.
- 이상혁 선생님의 학문과 인생에서 가장 해 보고 싶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가장 뜻깊었고 보람이 있었던 소중한 결실은 무엇이었는지요?
- 염무웅 돌이켜 보면 저희 세대가 그랬는지 제가 특히 더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늘 어떤 억압과 검열 속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정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평생 가져 본 적이 없어요. 무언가 어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지요. 불행한 일이죠. 그게 내면화되어 있다는 게 한없이 불행하죠. 국가 보안법은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잘못하면 걸리지 않을까 무의식중에 늘 걱정하고 누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

다는 의식을 완전히 털 수 없어요. 이런 억압적 조건 속에서 그래도 문학을 하고 글을 쓴 것은 잘 선택한 일 같아요.

이것저것에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있으니 생이 한두 개쯤 더 주어 진다면, 인류학 같은 공부를 해 보고 싶어요. 재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의 책을 읽어 보면 나도 그런 책을 한번 써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넓은 의미로 인류 문명을 조망해 보고,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어떤 변화를 겪고 살았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써 보고 싶은데 문학가로서 동시대인들에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돈 벌고 화려하게 사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같아요. 부럽지도 않아요.(웃음)

이상혁 선생님께서 한국 문학계에서 이루신 결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염무웅 저하고 영남대학교에서 친하게 지낸 고 정석종 교수가 조선 후기 민중 운동사를 전공했어요. 그이가 자료를 제공해서 황석영 작가가 『장길산』을 쓸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요. 『장길산』이나 『임꺽정』 등은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그 작품들의 진가를 평가 할 수 없잖아요. 염상섭의 『삼대』는 개화기 서울 사회가 배경이고 이광수 『무정』도 그 시대이니 이 시대를 모르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역사와 문학을 연관 지어서 하우저의 사회사적 방법론으로 문학과 예술의 역사를 본다고 했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역사는 큰 그림 속에서 한국 문학 작품의 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목표였어요. 결국 문학사와 일반사가 어떻게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물론 그 성과는 미지수지요.

이상혁 이사장님과 관장님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또한 문학 비평가로서 앞으로의 개인적인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 염무웅 우선 이 <<겨레말큰사전>> 사업을 북쪽과 협의하여 마무리 짓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젠가 끝나는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그냥 해산해 버리기엔 소중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방법이 있어요. 언어 통합뿐만 아니라 문화 통합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국립한국문학관은 이제 시작했으니, 흩어진 자료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 문인들의 유족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세요. 아무래도 유족의 입장에서 자기 선조가 남기신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잘 보존할 자신이 없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자료들을 잘 보존하는데 힘을 쓸 작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썼던 글을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문제죠.(웃음)
- 이상혁 끝으로 국어학자, 문학 연구자, 문인 등 후학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조언과 격려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염무웅 우리나라는 대학이 참 걱정스러워요. 단기적으로 논문 쓰는 데만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고, 3년, 5년 긴 호흡으로 뜻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요. 승진이나 취업을 위해, 연구비를 받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연구물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학 논문의 경우, 형식은 각주, 참고 문헌도 잘 갖춘 논문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단한 수필(에세이) 만도 못한 논문들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짧게 글을 썼지만, 거기에 깊은 학문적 통찰이 들어 있었거든요. 오늘날 대학 제도와 학문 연구가 젊은 후속 세대들을 공부하는 쪽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죠. 젊은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동시에 제도와 싸워야 한다는 게 서글프기도 합니다.